

12조 규모 편성했지만… ‘찜빔 추경’ 지적에 신속처리 미지수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등 초점 당초 10조보다 2조 증액한 규모

민주당 “최소 15~20조 늘려야” 국민의힘 “경제위기 타개엔 부족”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내주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요구해 온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서 신속히 논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3조원+ α)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4조원+ α) ▲민생 지원(3조원+ α)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경제 상황상 재정 투입이 시급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찜빔 추경’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동안 모니터에 명태균 씨의 사진과 관련 내용이 송출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이날 말~내달초까지 국회 문턱을 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등 35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요구해왔던 민주당에서는 12조원 규모의 정부안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며 ‘찜빔 추경’이라고 비판하

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 15조원까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추경안은 ‘찜빔 추경’에 불과하다”며 “내수 침체를 뚫으려면 최소 15조~20조원 수준으로 추경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실제로 한국경제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1원을 더 쓰면 국내총생산이 1.45원 늘어난다고 한다. 지금이야말로 확장 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살릴 때”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조차 빠른 추경을 언급하며 15조~20조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기획재정부는 왜 여전히 눈치를 보며 민생 회복에 소극적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 추경안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

적이 나온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2조원 규모의 추경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규모인데,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까지 염두에 둔 편성인가”라고 지적했다.

일단 여야 모두 산불 피해 복구 등 시급성과 경기 진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 건전성 등을 우려해 추가 증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관련 논의로 인해 시일이 걸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최 부총리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제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며 “가능하면 빨리 추경이 통과돼 집행할 수 있는 여러가지를 고려해 12조원으로 잡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민주당 ‘빅3’, 공명선거 다짐… “내란종식 위해 승리해야”

〈이재명·김경수·김동연〉

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 “흠결보다 역량·정책 강점 알리길” ‘어대명’ 기조에 경선희행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16일 당내 경선 규칙 확정 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정당당당한 경쟁을 약속했다. 다만, 3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경선에서 이 전 대표의 독주가 예상되면서 흥행에는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을 열고 정당한 경쟁과 경선 결과 승복을 약속했다. 박범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다름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깨끗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주시길 바란다”며 “흠결을 들춰내기보다 역량과 정책의 강점을 알리는 데 힘써주시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합된 경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 박범계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경수·김동연 후보(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선, 이기는 경선에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세 주자 모두 내란 종식을 위해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돼든 이겨야 한다”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을 파괴하고 국민을 배반한 저 세력들이 다시 이 나라의 권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여전히 내란 수괴를 꺼안고 사실상 내란수괴의 지휘하에 움직이는 저 사람과 저 세력들이

이 나라에 어떤 희망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은 후보의 기쁨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이라고 부연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

재인 대통령 세 분의 민주정부 3기의 공과를 모두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민주당”이라며 “그 경험과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경선이 되기를 기대하고, 경선 이후에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 선거처럼 대선을 치르는 민주 정당의 문화와 관행을 정착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선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통 큰 단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후보들이 출마함에 따라 ‘어대명(여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분위기로 경선이 치러져 자칫 국민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는 당초 100% 민심을 반영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의 도입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양한 주자의 의견을 선관위가 듣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대선 불출마’ 오세훈에 쏟아지는 러브콜… 이틀간 다섯번 회동

롯데, 대선 주자들에 신간·정책 내걸어

제21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틀 동안 흥준표 전 대구시장,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과 회동을 가지며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러브콜을 받았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15일) 저녁 흥준표 전 시장과 만찬을 가진 데 이어 16일엔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유정복 시장을 차례로 만나 인기를 실감했다.

오 시장은 자신을 찾아온 대선 주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자신의 신간 ‘다시 성장이다(부제 :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와 자신의 대표 정책인 ‘디딤돌 소득, 서울런, 약자동행지수’ 관련 자료를 내걸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이고, 서울런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교육 사다리 복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플랫폼이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를 위해 펼친 정책

이 시민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이를 받아든 후보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다. 흥 전 시장은 “우리가 공약을 그대로 받아 실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 김 전 장관은 “대선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당선되면 잘 시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호평했다.

나 의원은 “디딤돌 소득은 보수 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런이 팔도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 시장의 정책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돌아가서 자세하

게 살펴보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8명의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 가운데, 경선 후보들이 오 시장을 찾아가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지지총’을 흡수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은 4명을 남기는 1차 경선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보수 진영의 4선 서울시장으로 이번 대선에서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끌어올 수 있는 후보로 평가받았다. 경선 주자들도 저마다 오 시장과 공유하는 경험을 앞세우며 친분을 과시했다.

김 전 장관은 “(오 시장과) 상당 기간 동안 같이 행정을 했고 오 시장과 저랑 정책적으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부분에

서 다른 후보와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며 “오 시장이 훌륭한 정책을 갖고 뜻을 펼치려 했는데 중간에 그만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오 시장이 저에게 한 첫 말은 ‘저와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였다”라며 “(오 시장이) 중도확장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선 중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을 만난 주자들은 일각에서 나오는 경선 후 반이재명 ‘빅텐트’론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 했다. 나 의원은 “경선에 집중할 때”라고 선을 그었으나 안 의원은 “최종 후보가 된다면, 반이재명을 표방하는 캠프에 대해서는 문호를 활짝 열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